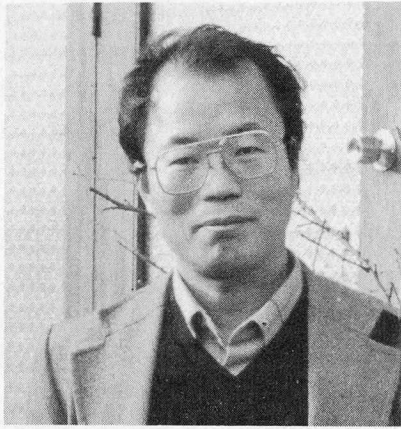


한국에 대한 '視角의 재조정'

일본 출판계의 '한국 러시'의 배경

金容權

評論家 · 在日



필자 소개

金容權씨(40)는 재일동포 2세로 일본 早稻田大 문학부 불문학과 출신. 현재 일본 문화계의 한국 붐을 주도하는 대표적인 문필가로 활약하고 있으며, 달레의 『朝鮮敎會史』를 비롯,李玉교수(파리大)의 『韓國史』(고세즈문고판), 李圭泰씨의 『韓國人의 意識構造』 등 많은 책을 日語로 번역, 출간한 바 있다.

자연스러운 關心의 반영

근대 100년에 있어서 일본에서 한국관계의 책이 가장 많이 출판된 것은 80년 전의 '한·일합방'을 전후한 시기와 최근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이다. 이 두 시기의 출판경향을 비교검토함으로써 일본의 對韓國意識을 탐구해 보는 것도 흥미있는 테마이지만, 여기서는 다루지 않기로 한다.

새삼 말할 필요도 없지만, 80년 전의 한국관계 저작물의 출판목적은 한국에 건너가서 한탕해 보려는 독자를 대상으로 삼은 것이 많

은 部數를 차지했다(그 종류에 있어서는 반드시 그렇지도 않았지만). 그것은 시대의 반영이기도 했지만, 그 때문에 한국의 역사·지리를 소개하는 책, 會話책과 한국인의 민족성 등을 일본식으로 제멋대로 해석한 것이 많았다고 할 수 있다. 당시 일본의 한국진출에 출판도 한 몫을 했다는 사실에서, 80년대의 한국관계 출판물의 급격한 증가추세와 그 영향을 주의깊게 주시하는 識者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그 나름의 역사의식을 갖는 것이기는 하지만 단순한 역사의 어널러지(analogy)에 지나지 않으며, 타당한 평가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80년대의 한국에 관한 출판은 일본독자의 아주 자연스러운 관심을 반영한 것이라고 결론지을 수 있다. 과거의 한국관계 도서에 대한 반동과, 한편으로는 歐美일본도에 대한 염증이 그 근거에 깔려 있다.

말하자면, 80년대 이전의 한국관계 도서출판은 우선 팔리지 않는다는 것이 전제로 되어 있었다. 이는 출판경향에 현저히 관계되는 것이지만, 한국의 남북 대립을 질게 반영한 데서 정치색채를 풍기는 것이었다. 바꿔 말하면, 남북을 정치적으로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필자는 미리 어느 한쪽 입장에 치우쳐야 했다. 그러므로 같은 테마로 묘사하더라도 결론이 극단적으로 달라지는 등의 모순만이 두드러졌다. 이는 또한 남북의 정치적 선전을 처음부터 예정하고 있었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불완전하나마 한국을 제대로 알려고 하는 진지한 독자를 혼란시켰다.

이론적인 전문서적은 기피

다음은, 테마를 너무 이론적으로만 따지는 이른바 専門書가 태반을 차지했다는 사실이다. 여기에는 이른바 '36년간'의 일본의 죄과를 어떤 식으로 청산할 것인가 하는 '학자적 양심'이 존재하고 있었다고 하겠지만, 그것은 극히 한정된 인사들의 화제와 관심을 불러일으킨데 지나지 않았다. 일반적인 일본인은 자기 나라의 정치나 역사를 이론적으로 따지는 책에조차도 냉담하게 마련인데, 어찌서 다른 나라의 정치·역사 논의에 관심을 갖게 되겠는가. 아무리 도의적 책임을 추궁해 봤겠자 우선 자기 나라의 정치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이웃나라의 정치에 관심을 가질 이치가 없다.

이를 歐美관계 책과 비교해 볼 경우, 일본의 미국연구자들은 미국사회의 책스를 논하고 서커스, 폭력, 음식을 흥미깊게 묘사했다. 연구자들은 전문가인 만큼 守備영역인 미국 근대문학에 대해서도 훌륭한 업적을 남기고 있는 것은 물론이다. 전문적인 연구 일본도도 좋긴 하지만, 그 연구과정에서 알았거나 전문분야에서 약간 벗어난 흥미있는 문제나 사실을 일반에게 제공하는 것도 연구자의 또 하나의 책임이었는데, 한국연구자는 그것에 능숙하지 못했다. 연구자층이 얇았던 것이 주된 원인이었지만, 그런 만큼 폭넓은 관심에서 우러나오는 저작물이 필요했던 것이다. 그것이 곧 앞으로의 연구예비군의 육성으로 가능해질 것은 물론이다.

그러나 8·15 40년을 전후하는 80년대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구미 일본도였던 일본의

한국관계 저작물은 종래에는

팔리지 않는 책의 대명사였으나,

최근에는 이렇게 쏟아져 나와도

장사가 될까 할 정도로 활발히

출판되고 있다.

그에 따라 다루는 영역도 넓어졌고,

한국을 정면으로 파악하려는

독자층도 늘고 있다.

출판계에서 아시아를 알고자 하는 욕구가 서서히 일어났다. 이는 시대의 한 흐름에서 오는 것이었다. 즉, 경제적·정치적 중심이 구미로부터 차츰 아시아로 還流하는 징조를 반영하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좋을 것이며, 한편으로는 일본인의 관심이 시계추의 반작용으로서 아시아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시기이기도 했다.

語學 한가지만 해도, 80년대에 들어와서 일본의 商社員 사이에서는 영어 이외의 또 하나의 외국어가 필요하게끔 되었는데, 그 선택에 있어 독일어나 프랑스어가 아니라 중국어나 한국어에 관심이 기울어지고 있다. 이는 현실적인 필요성에서 오는 것도 큰 원인을 부정할 수 없겠으나, 아시아에 대한 관심이 큰 것도 사실이다.

身邊에 파고드는 한국어

4년 전 NHK가 한글강좌를 개강할 때, 그 명칭을 둘러싸고 큰 논쟁이 있었다. 이는 남

慶州南山

寫眞 - 姜運求 글 - 金元龍 · 姜友邦

佛敎文化의 寶庫 慶州南山에 산재해 있는 佛蹟을 한눈에 通觀할 수 있도록 체계있게 편집한 울컬러판 사진집

千年을 거슬러 올라간 新羅淨土의 현장 재현

신라인들이 오르던 길을 오르고 있으면 솔나무 옆의 두리몽실한 바위가 부처가 되고 흐르던 시간이 소리없이 떨어져 신라로 돌아간다. 천년, 부처는 그렇게 앉아 계시고, 천년, 그렇게 서계실 것이다. 부처는 바위, 바위는 부처, 우러러보는 사람도 부처, 모두 피가 통하는 일심일체이다. 바위가 땅에서 솟아나고 바위에서 부처가 솟아난다. 그리고 그뒤에 신라의 佛工이 서있다. 무언의 대화는 그저 감격뿐이다. — 金元龍

• B4判 (25.8 × 37.6 cm) / 호화양장 / 케이스入 總 208面 울컬러판 / 값 100,000원

열화당 서울 마포구 신수동 445-5 출판단지내 715-1588, 717-0613

북의 정치적 배경을 반영한 것이었는데, 「아사히신문」의 독자란인 「論壇」에 실로 10회가 가까이 이를 둘러싸고 투서가 게재되었다. '조선어', '한국어', 심지어는 '코리아어'로 하자는 진기한 안이 나오기도 했다. NHK는 남북의 대립을 피해 '한글강좌'로 낙착되었는데, 개강 첫해는 대단한 평판을 불러일으켰음에도 소득은 그리 대단치 않았다. 공공방송에 '소득'(벌이) 운운함은 좀 낫한 얘기이지만, NHK의 어학방송에는 텍스트가 판매되었고 그 속에는 방영에는 없는 광고가 들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한글로 된 교재에만은 책 광고도 없었고, 한국에 관한 상품광고도 일절 없었다. 이것도 남북의 대립을 배제하기 위한 NHK의 苦肉策이었던 것이다.

그렇다고 해도, 그와는 관계없이 한번 방송된 한글의 재미에 많은 일본인이 담벼들었다. 이렇듯 재미있고 일본인에게 착 달라붙는 언어가 이웃나라에 있었던 줄을 이제까지 몰랐다는 말이 많이 들려왔다.

그러나 얼른 봐서 직접 정치와는 관련이 없다고 생각되는 부류의 책도, 특히 한국관계의 책이면 정치가 스트레이트로 개입되게 된다. 앞서 말한 '한글'이 그렇고, 최근 출간된 요리책도 그렇다. '한국요리'라고 하느냐, '조선요리'라고 하느냐는 편집자를 고달프게 한다. '조선요리'를 선택했다고 해서 별다른 이데올로기가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조선요리'라고 하는 것이 단지 잘 먹혀들어간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뿐이다. '한국요리'도 마찬가지다. '한국'으로 했다고 해서 별나게 요리맛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지만, 독자를 당황하게 할 뿐이다.

출판 대상영역 넓어져

확실히 한국관계 저작물은 지금까지는 팔리지 않는 책의 대명사였으나, 최근에는 이렇게 쏟아져 나와도 장사가 될까 걱정될 정도로 출판되고 있다. 테마의 폭도 확대일로에 있다. 종래에는 정치나 역사에 관한 딱딱한 테마뿐이었던 것이, 앞서 말한 한글이나 요리, 일상

생활, 게다가 젊은이를 소개하는 책과 민족성에 관한 것 등 다루는 영역이 넓어졌다. 이는 뭉치니 해도 잡지·TV에 의한 한국특집의 영향이 크고, 그것이 곧장 단행본에 반영되고 있다.

그러나 한편, 역시 팔리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특히 전문서적은 옛날과 마찬가지로 잘 팔리지 않는다. 확실히 한국에 관심을 갖는 층은 늘어나 저변이 넓어졌는데도 말이다. 물은 낮은 데로 흐르듯이, 출판내용도 쉬운 데로 흐른다. 이는 한국도서에서도 마찬가지다. 이런 흐름에서 나온 것이 3년 전 「평범 판치」라는 잡지의 한국특집이었다. 한국의 유명 여배우를 발가벗겨 놓아 굉장한 물의를 빚어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당시 한국쪽에서 '일본놈들 두고 보자'고 경계와 분통이 터져 나왔다. 말이 나왔으니 말이지만, 확실히 「평범 판치」는 일본인이 경영하는 잡지이지만 한국 여배우를 발가벗긴 장본인은 재일 일본인 2세인 安原相國(安相國)이란 자와 玉木榮一(李榮一)이란 자였다. 이 사건에 대해 玉木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오소득스한 문화 소개는 일본의 문화청이나 한국의 公社가 해야 할 일이지, 우리가 할 일은 아니다. 대중문화라고나 할 밑바닥의 것, 양반인 체하지 않는 것, 별거숭이 것을 소개하고 싶다. 그러나 그런 것에는 기존 라인이나 루트 같은 것은 없다. 하나씩 쌓아올리는 길밖에 없다. 누군가가 그걸 하지 않으면 안된다. 오랜시일에 걸쳐 나는 그런 일을 해나갈 것이다."

어쨌든 서울 올림픽을 올 가을로 앞두고, 일본에서의 한국관계 도서출판은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이다. 모름지기 상업주의를 추구하겠지만, 그런 가운데서 한국을 정면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독자도 늘어갈 것으로 생각된다. 그것은 다만 사명감으로서의 '한국'이 아니라, 自然體로서의 미국이나 프랑스, 영국, 독일을 배우고 연구하는 것과 다름없이 어깨에 힘을 주지 않는 그런 태도일 것이다.

책주변이야기

위험한 「뉴욕 타임스」

「뉴욕 타임스」 일요판은 평균 350페이지에 무게가 3파운드나 되므로 침대에 누워서 읽다가 자칫 호흡이 막힐 수도 있다.

가장 훌륭한 도서관

대영박물관을 가장 훌륭한 도서관으로 연구자들은 꼽는다. 여기에는 6백만권의 인쇄된 책, 6만권의 미발간 원고, 가장 많은 이집트의 파피루스가 소장되어 있다. 파리의 국립도서관도 6백만권의 도서를 소장한 대단한 도서관이나, 대영박물관만큼 명세 분류가 잘되어 있지 못하다.

'e'가 전혀 없는 소설

전위작가인 주앙 루이 카스틸레조는 '소위 문학이라고 불리는 언어의 폭군'을 공격하는 한 두꺼운 책을 발간했는데(1969), 그 책에는 i 철자가 없다고 한다. 조르주 페레(G. Perec)가 펴낸 「소멸(La Disparition)」(1969)에는 e 자가 전혀 없다. 불어·영어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철자가 e 자인데, e 없는 소설은 이보다 먼저 1939년 어네스트 빈센트 라이트가 써서 영국에서 출판한 「Gadsby」라는 소설로서 e 없이도 놀랍게도 자연스럽게 읽을 수 있는 책이었다고. (예문 : Gadsby was walking back from a visit down in Branton Hills...)

입으로 쓴 소설

영국의 윌리엄 뎀피어란 작가는 「존카터 이 회상」이라는 소설을 써서(1850) 유명해졌는데, 그는 그 책의 집필을 손이 아니라 입에 펜을 물고 썼고, 삼화도 펜을 입에 물고 잉크를 찍어 그렸다.

치과질환에 대한 시

1840년 솔리만 브라운이라는 뉴욕의 치과 의사인 치과질환에 대한 시를 쓴 「Dentology」라는 치과질환에

대한 시는 시로선 별난 것으로, 그 시의註로서 치과에 연관된 여러 정보와 함께 미국 전역의 훌륭한 300명의 치과 의사 리스트도 붙여놓고 있다고.

연극 '숨쉬기' 끝 부분

사무엘 베케트의 연극 '숨쉬기'는 1970년 4월에 초연되었는데, 그 연극은 30초 동안 아무런 대화도 없는 것으로 끝나고 있다.

일요판 「뉴욕 타임스」를 누워서 읽으면?

「뉴욕 타임스」를 일요일에 침대에서 읽는 것은 해롭다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너무 양이 많고 무거워 깜빡 조는 동안 그만 그 신문들에 눌러서 호흡이 방해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평균 350페이지에 거의 3파운드나 되는 일요판에는 「뉴욕 타임스 매거진」도 부록으로 끼어 있다.

책력 이야기

가장 오랜 책력은 BC1200년에 만들어진 것으로, 파피루스 두루마리에 붉은 잉크로 적혀 있다. 거기에는 점성술로 그날의 지해도 적었는데 '이날은 전혀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말도 있다고. 영국에서 프란시스 무어에 의해 출판된 책력은 비서가 날자를 부르며 그의 머리 끝에 오는 감각으로 그날의 일기예보를 적게 했는데, 어느 오후에 비서가 잠든 그를 깨우며 더비데이(1867. 6. 3)의 일기예보를 묻자, 잠이 덜 깬 그는 "출다. 눈이 오는군. 제기랄"하여 그날도 눈이 오는 것으로 적혀 있다 한다. 이후 사람들의 말 실수를 덮는 뜻으로 "하키야 더비데이를 기억해야지"하는 말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유럽 최초의 공공도서관

1444년 피렌체에서 메디치가가 마련한 도서관은 로마시대 이래 유럽 최초의 공공 도서관이 되었다. 1434년에서 69년까지 1,500만달러를 도서구입비로 썼는데, 그중에는 1만명의 그리스어와 라틴어로 된 원고와 삽화를 그린 수고본들이 있었고, 이것들은 이탈리아의 인본주의(르네상스)를 넓히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松山出版社

서울·서대문구 홍제 4동 12-76
Tel. 735/6189

서반어교재

① 初級 西班牙語	352면 ₩ 4,500 馮德龍 著
② 中級 西班牙語講讀	240면 ₩ 3,500 趙錫國 著
③ 西班牙商業通信文	315면 ₩ 5,000 趙錫國 著
④ 初級 西班牙語會話	222면 ₩ 3,500 馮德龍 RUIZ 共著
⑤ 西班牙語作文	174면 ₩ 3,000 金昌煥 著
⑥ 大學 西班牙語	122면 ₩ 3,500 馮德龍, Vanegas 著
⑦ 中 南 美 小 說	260면 ₩ 5,000 손관수 著
⑧ 中 南 美 文學精選	410면 ₩ 6,000 김현창 著
⑨ 時事 西班牙語	278면 ₩ 4,000 윤석영 著

⑩ 中 南 美 史	386면 ₩ 5,000 金昌煥 著
⑪ 이스파노·아메리카文學論	230면 ₩ 3,000 金昌煥 著
⑫ 基礎 에스빠냐語	244면 ₩ 3,500 金昌煥·李昌永 共著
⑬ 中 南 美 移民과政治	245면 ₩ 4,000 姜錫永 編著
⑭ 西班牙語自習書	470면 ₩ 4,500 최희석·김부래 共著
⑮ 스페인어 예상문제집	유시태 編著
⑯ 스페인어	280면 ₩ 4,000 유시태 編著
⑰ 학력 스페인어	340면 ₩ 4,000 유시태 編著
⑱ 도해서한사전	854면 ₩ 7,000 김창환 監주

靈科學씨리즈

① 死後世界를 다녀온 사람들	252면 ₩ 3,000 A. 무디저·송준식 역
② 前生을 기억하는 아이들上	372면 ₩ 3,800 이안·스티븐슨 저 송준식 역
③ 前生을 기억하는 아이들下	326면 ₩ 3,600 이안·스티븐슨 저 송준식 역
④ 믿을 수 없는 偶然	280면 ₩ 3,200 김기철 역
⑤ 他界와의對話	278면 ₩ 3,000 J.H. 하이슬 저 하재기 역
별책 心靈科學入門	336면 ₩ 3,200 그린하우스·김봉주 역
별책 스웨덴보르그傳	328면 ₩ 5,000 조지·트리브리지 저 송준식 역